

“내 아이도 혹시?” ... 광주, 친자 확인 유전자 감식 급증

‘채동욱 혼외자 의혹’ 사건 이후 크게 늘어 월 수백건 의뢰 ... 부부간 신뢰 무너진 탓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공신력있는 친자 관계 조사기관에서 이같은 말을 들었다면 어떤 심정일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사건 이후 광주에 떠어난 ‘친자 확인 붐’이 일고 있다.

6일 현재 광주에서 운영중인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감식연구소는 대략 5곳. 이들 연구소는 최근 한 달 평균 50~100건 정도의 DNA(유전자) 감식 의뢰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친자 확인을 위한 의뢰가 40% 가량 된다는 것이다.

해마다 친자 확인을 위한 DNA(유전자) 감식 의뢰가 5~10% 가량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채 전 총장 파문 이후 평소보다 20%가량 확인 요청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자 확인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혼전·혼외 정사가 늘어나 애인이나 배우자간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 특히 인터넷·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애인 만들기’

가한 문화로 자리 잡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예전엔 자신의 핏줄을 찾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면 요즘엔 DNA 감사를 통해 손쉽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감사를 부추기고 있다.

머리카락 모근이나 구강 상피세포, 혈액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비교해 친자를 확인하는 데는 빠르면 하루면 가능하다. 다만, 담배꽂조각이 특

한 사람 타액이 묻어 있는 물질에서 DNA를 추출해 친자 확인을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4일이 필요하다.

가격은 대개 12만~15만원 선으로 부모와 자식 유전자를 모두 비교할 땐 36만~45만원 선에서 친자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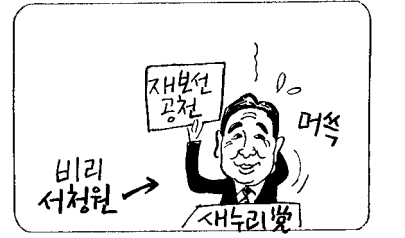
광주지역 한 유전자감식연구소 업계 관계자는 “혈연에 대한 애착이 강한 우리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친자확

인 의뢰가 붐을 이루고 있다”며 “이러한 이면에는 불륜이 만연하는 사회 풍조에도 혈연 관계에 따라 양육비와 상속권 등 재산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1년 말 전국 법원에 접수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및 친생 부인’ 소송(1심 기준)은 모두 5050건으로 10년 전인 2002년 2624건에 비해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니웃침 (8899) 김장두



직업소개소 강도 현금 강탈

지난 5일 오후 4시40분께 광주시 서구 마곡동 A직업소개소에 20대로 보이는 남성이 침입해 주인 허모(68)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30만원과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났다. 범인은 흉기를 든 채 허씨가 책상 위로 빼놓은 현금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80cm 가량의 남성을 추적중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온종일 일하고 먹은건 장아찌 두 조각

음식 찌꺼기 통 뒤지다 발길질 당하기도 광복 후 돌아와선 주변사람 손가락질...”

눈물없는 못들을 근로정신대 생활

양금덕 할머니 법정 증언

지난 4일 오후 2시에 광주지방법원 204호 법정. 일제 강점기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근로정신대 손해배상 4차 공판을 지켜보려는 시민들로 가득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2) 할머니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허위진술의 제재를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에 이어 김정희 변호사의 질문에 당시의 끔찍한 노동력 착취 상황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날 증언은 광복 68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이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양 할머니는 “아직도 눈에 선하다”며 또박또박 답변을 이어갔고 양 할머니의 증언이 계속되면서 방청석에는 눈물과 탄식이 흘러나왔다.

1944년 5월 당시 13살로 나주 대정국민학교(현 초등학교) 6학년 급장을 맡았던 양 할머니는 “중·고등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벌게 해주겠다”는 일본인 교장과 헌병에게 속아서 근로정신대로 뽑혀갔다고 전했다.

자원하는 학생이 없자 당시 급장이었던 양 할머니에게 “급장이 손을 들지 않으면 누가 가겠느냐”며 압박했고 공부를 계속해 교사가 되고 싶었던 양 할머니는 부모 동의 확인에 필요한 아버지의 도장을 훔치다가 담임에게 갖다줬다고 했다.

“일본에 가면 죽는다”며 반대하는 아버지가 무서워 가족과 작별인사조

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일본행 뱃길에 올라선 13살 소녀는 이후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생활’을 하게 됐다.

아침에 눈 뜨면 온종일 비행기 부품의 녹을 시니니 알코올로 닦고 완성된 비행기에 페인트칠하는 일과 반복했고 식사는 매실 장아찌 두 조각, 단무지 두 조각, 된장국이 전부였다고 했다. 일본인들이 먹고 버린 음식 찌꺼기 통을 뒤지다가 발길질을 당했고 부족한 화장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다가 선체로 소변을 누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광복 후 양 할머니는 10월 20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불편한 시선이 가더라고 있었다.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죽으라 일만 하고 돌아온 그를 ‘종군 위안부’, ‘일본군의 성 노예’로 오해한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였다.

양 할머니는 1999년 3·1절에 맞춰 일본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낸 소송이 모두 기각됐지만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보내준 성원을 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침묵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다.

양 할머니는 “68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말 한마디 않고 있어 너무도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 석 자가 적힌 비석이라도 세워서 원풀이해 드리고 눈감는 게 소원”이라며 증언을 마쳤다. 이번 소송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린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개미장터 나눔축제 지난 5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광주시 나눔대축제’에 참가한 시민들이 개미장터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법, 양형 기준 가장 안 지킨다

준수율 83% 전국 최하위

광주지법이 서울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가운데 양형 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서울 중랑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중 최하위였다.

서울북부(83.3%), 울산(83.5%), 서울중앙(84.1%), 창원·부산(84.4%) 등의 준수율은 평균(85.8%)보다 낮았으며 춘천(88.4%), 대전(88.

2%), 대구(87.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국 법원의 준수율은 양형 기준이 처음 시행된 2009년 하반기(90.5%)보다 5% 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약취·유인범죄의 준수율이 68.8%에 불과했으며 마약(80.1%), 식품·보건범죄(80.5%), 절도범죄(80.7%), 뇌물범죄(81.7%) 등도 낮았다.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성범죄의 준수율은 85.7%였으며 살인범죄는 88.7%였다고 서 의원은 밝혔다.

/이현정기자 chadol@kwangju.co.kr

몰카 범행 최다발생 장소는 역·대합실

광주·전남 5년간 분석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는 역·대합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 건수는 모두 319건이다.

연도별로는 ▲2009년 38건 ▲2010년 43건 ▲2011년 57건 ▲지난해 106건 ▲올해 75건 등으로 해마다 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장소별로는 역·대합실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목욕탕 52건 ▲아파트·연립주택 34건 ▲도로상 30건 등의 순이었다.

피의자는 231명 중 남성이 217명(93.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범행동기는 호기심이 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발적 범행과 이득에 의한 범행이 각각 56건·15건으로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학생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직자 52명 ▲일반 회사원 30명 등의 순이었다. 이 중엔 공무원 3명·교수 1명 등 사회지도층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화장실 어디? ...만취 외국인 소란

화장실을 찾는다며 무단으로 광주시청을 들어가 소란을 피운 만취한 20대 외국인이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경찰서행.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L(29·러시아)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에 들어가 1층과 14층을 오가며 복도 주변을 서성대고, 출동한 경비원의 명령에 불응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술에 취한 L씨는 경찰에서 “화장실을 가려 했지만 어디인지 잘 몰랐고, 1층 화장실이 고장이 난 것 같아 14층까지 올라가게 됐다”며 황실수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굿모닝 메디컬 타운 선착순 임대, 분양중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 | | | | |
|-------|---------------------------|-------|-----------------------------|
| 지상5층 |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6층 |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 지상7층 |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8층 |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 지상9층 |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0층 |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 지상11층 |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12층 |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9월 16일 CGV 오픈 2013년 10월 15일 락볼링장 & 락카페 오픈예정 2013년 10월 25일 굿모닝 골프연습장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 | | | | |
|-------|--------------------|-------|-------------|
| 분관 1층 | 유니클로동 브랜드 의류매장 분양중 | 분관 2층 | 브랜드피자 분양중 |
| 별관 1층 | 브랜드커피숍 및 미용실 분양중 | 별관 2층 | 한정식 분양중 |
| 별관 3층 | 일식 분양중 | 별관 4층 | 패밀리레스토랑 분양중 |
| 별관 지하 | 직원식당 겸 일반식당 분양중 | | |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